

고등학교 영어 사교육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김다희**

중앙대학교

이진화

중앙대학교

Kim, Da-hee & Lee, Jin-Hwa. (2014).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perception on their experience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during high school years.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41-262.

This paper investigated how university students, once they entered a university, reflect upon the private English education they received as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with 320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In-depth interviews were further conducted with 8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private English education than public English education. They also perceived that private English education helped to improve their English scores in high school tests as well as SAT but it was not helpful in improving their English skills in general or enhancing their performance in a university.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ould take private English education again if they went back to high school years, but with less intensity and for shorter duration compared to their past experience. Interview data revealed that the students came to have renewed perception on public and private English education after they entered a university.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suggestions for public English education.

[private English education/public English education/reflective perception/
영어 사교육/영어 공교육/성찰적 인식]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자신들이 받았던 영어 사교

* 본 논문은 김다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제1저자: 김다희, 교신저자: 이진화

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찰적 관점에서 사교육이 중등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 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을 유발함은 물론, 학급 내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심화시켜 정상적인 수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공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교육이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폐해와는 별도로, 사교육의 실질적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학자 간 이견이 존재한다.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김인옥, 2002;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 2004; 정영애, 김정미, 2002), 사교육의 효과는 미미하고(김성연, 2014;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그보다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 및 동기와 같은 요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성기선, 2003; 정양수, 김경애, 2008; 진경애, 2013)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여전히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가는 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사교육을 통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남미숙, 2010; 오준일, 2011) 공교육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 교사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보라, 2008; 연상미, 김태영, 2010). 이러한 기대와 인식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대부분이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식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한다. 특히 사교육은 주변인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종의 집단 심리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현재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시절 치열한 대학 입시를 위하여 영어 사교육을 택했던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진학한 후 자신들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에 대해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지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절 영어 사교육을 받았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에 대해 성찰하고 재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이 된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을 각각 바라보는 입장과 한국의 영어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 1)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에 대해 학교 영어 교육과 비교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 2)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3)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대학생들은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그 형태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1. 영어 사교육 실태 및 원인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통계청(2013)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 19조 395억원 중 영어가 6조 46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는 소득 격차에 따라 차이를 보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희삼(2012)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19.6%로,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 비율 68.4~70.7%와 비교해 보았을 때 3.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영어 사교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이다. 정유경(2013)은 중·고등학교 영어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학교 영어수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 841명 중 372명(44.2%)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어 능력과 동기가 대체로 동질적인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중심의 수업을 하는 사교육의 상황과, 영어 능력과 동기가 천차만별인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공교육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공교육의 질이나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특히 교육의 효율성이 입시 성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입시에서 영어가 주요 과목으로 존재하고 영어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영어 사교육 열풍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2.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그 동안 영어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영어 사교육 열풍의 원인을 파악하고 영어 공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일련의 연구자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영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비교하였다. 연보라(2008)는 서울의 노원, 광진, 송파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35명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영어교과 지식, 영어 수업 관련 교수법,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생활지도 및 상담자 역할, 네 가지 영역에서 공교육과 사교육 영어 교사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영어 사교육 교사의 전문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점수에서 공교육 영어 교사들은 평균 3.00점을 받은 데 반해, 사교육 영어 교사들은 평균 3.48점을 받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에 대해 연구자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입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교사에 대한 인식이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상미와 김태영(2010)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경기도 소재 여자중학교 2학년 86명과 영어 특성화 여자고등학교 1학년 53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수업 관련 기술, 이해도 점검 및 평가 영역, 상호작용 기술 및 학생들과의 관계, 교사의 인성,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공교육과 사교육 영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보라(2008)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사교육 영어 교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상호작용 기술 및 학생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 연구 및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영어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핀 데 반해, 일부 연구자들은 자녀들의 사교육 수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오준일(2011)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주변 환경의 자극보다는 자녀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남미숙(2010) 역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가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나 특목고 입학 등의 이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들은 대체로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사교육이라는 집단적 현상의 기술이 내부자

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처럼 집단 심리적인 성격을 띠는 현상의 경우, 현상의 중심에 있을 때와 그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평가는 영어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와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실제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지는 대학 입시를 치른 후에라야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허균(2002)은 입시 상황 아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4년제 대학생 1, 2학년을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방식으로 400명을 추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을 시행한 결과, 70.3%의 학생들이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87.4%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과목의 성적이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답해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사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74.4%의 학생들이 사교육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 편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4%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사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이 중요했다고 답했고 55.3%의 학생들만이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사교육을 수강할 것이라고 답해, 대학 입시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반적인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 있는 영어 사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들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 사교육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영어 공교육을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상 수준의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이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328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장을 제외한 320부 가운데서, 고등학교 시절 영어 사교육 경험이 있는 294명(91.9%)의 설문지만이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설문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여성(53.4%)의 비율이 남성(46.6%)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31.6%)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계열(26.2%), 공과계열(22.8%), 경영경제계열(8.8%), 예술계열(6.1%), 자연계열(4.4%)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41.5%)이 가장 많았고 2학년(22.8%), 3학년(21.8%), 1학년(13.9%)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자의 47.6%가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여자가 28.9%, 기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형태는 일반계 고등학교(85.0%)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7.5%), 외국어 고등학교(1.4%), 과학 고등학교(0.7%), 기타(5.4%)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94명의 대학생 중 표 1과 같이 여덟 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어 사교육을 받은 기간과 고등학교 졸업 지역만이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층면담 대상자는 영어 사교육을 받았던 기간(1년 이하/1년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지역(수도권/지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조합별로 두 명씩 선발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정보

번호	성별	학년	전공	고등학교 졸업지역	고등학교 형태	영어사교육 수강기간	사교육유형
1	남	1	건설시스템	서울 강남구	일반(공립)	2년 반	종합학원
2	여	4	가정교육	서울 강서구	일반(사립)	2년	개인과외, 영어단과학원
3	여	4	영어교육	대구광역시	외고	2년	영어단과학원
4	여	2	러시아어	충청북도 청주	일반(공립)	3년	그룹과외, 영어단과학원
5	여	3	영문학	경기도 수원	일반(공립)	1년	개인과외
6	남	4	수리통계학	경기도 과천	일반(공립)	1년	개인과외
7	여	4	법학	전라북도 전주	일반(공립)	1년	개인과외, 종합학원
8	여	3	산업정보	강원도 강릉	일반(공립)	1년	개인과외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설문지는 허균(2002)의 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설문지에서 23문항을 골라 영어 사교육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정유경(2013)의 중·고등학생 대상 영어 사교육 실

태조사 설문지에서 7문항을 골라 대학생에게 맞도록 내용을 변경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이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형태	문항번호
응답자 정보	성별, 대학교, 전공, 학년, 출신 고등학교 지역 및 유형	단수 응답식 기입형	1~5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 내용	영어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형태, 기간, 비용, 사교육 권유자, 영역, 수강 이유	단수 응답식 복수 응답식	6~15
학교 수업 대비 영어 사교육 만족도	영어 사교육 기관 시설, 수업 분위기, 교재, 교우관계, 강사	리커트식 단수 응답식	16~21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효과	영어 수능 및 내신 성적 향상, 일반 적인 영어 실력 향상, 대학에서의 유용성	리커트식 단수응답식 서술형	22~29
영어 사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영어 사교육의 심각성, 문제점, 개선사항	리커트식 단수응답식	30~32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 이유	단수응답식 서술형	33~40

설문지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 즉 응답자 인적 사항(5문항),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내용(10문항), 학교 수업과 대비하여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 만족도(6문항),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효과(8문항), 영어 사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3문항),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8문항)를 묻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단수 선택형(선택지에서 택일), 복수 선택형(선택지에서 복수 응답 선택), 리커트형(회피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제시), 단순 기입형(학과명 등을 기입) 그리고 서술형(이유 등을 기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작된 설문지는 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test)를 시행하였고, 이 가운데 리커트 방식으로 설계된 9문항에 대해서 내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6~.878로 타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은 설문지에 사용된 질문을 바탕으로 하되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질문 내용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일차적인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도 설문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 가령, 각 문항에 대한 선택 이유나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3. 연구 절차

설문 조사는 총 4주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개 대학교는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고, 세 개 대학교는 해당 대학의 대학원생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두 달여 동안의 설문지 분석이 끝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면담 대상자 8명을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 목적 및 진행 방식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대상자의 학교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고 대략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가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 자료를 연구 문제에 맞게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두 개 이상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중 응답 코딩을 사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설문 참여자의 인적 사항이나 영어 사교육 경험의 특성과 같은 변인에 따라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성별, 학년, 학과, 출신 고등학교 유형, 지역, 사교육 기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사교육 기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변인에 따른 교차분석만을 제시하였다.

녹음된 면담 자료는 모두 전사한 후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각각의 연구 문제에 맞는 의미를 도출한 후 비슷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고 그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중요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김영천, 2012). 면담 자료는 설문 자료에서 발견된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학생들의 과거 영어 사교육 실태

우선 참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어떠한 영어 사교육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의 영어 사교육 수강 형태, 수강 동기, 수강 기간 및 시간, 비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형태로는 영어단과학원과 종합학원이 각각 30.6%,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2013)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 중 학원수강(27.9%) 형태가 가장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누구의 권유로 영어 사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7.5%의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 사교육 수강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영어 사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권유(32.3%), 친구의 권유(8.8%), 선생님의 권유(1.4%) 순으로 영어 사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실태

문항	세부사항	응답자(%)	문항	세부사항	응답자(%)
수강 형태 (복수 응답)	영어단과학원	90(30.6)	수강 기간	6개월 미만	37(12.6)
	종합학원	74(25.2)		6개월~1년 미만	52(17.7)
	개인과외	58(19.7)		1년~1년 6개월 미만	28(9.5)
	온라인 강좌	41(13.9)		1년 6개월~2년 미만	55(18.7)
	그룹과외	30(10.2)		2년~2년 6개월 미만	77(26.2)
수강 시간 (주당)	영어학습지	1(0.3)	수강 비용 (월별)	2년 6개월 이상	45(15.3)
	1시간 미만	8(2.7)		5만원 미만	2(0.7)
	1시간~2시간 미만	40(13.6)		5만원~10만원 미만	22(7.5)
	2시간~4시간 미만	87(29.6)		10만원~20만원 미만	71(24.1)
	4시간~6시간 미만	67(22.8)		20만원~30만원 미만	72(24.5)
	6시간~8시간 미만	80(27.2)		30만원~40만원 미만	85(28.9)
	8시간~10시간 미만	8(2.7)		40만원~50만원 미만	28(9.5)
	10시간~12시간 미만	4(1.4)		50만원~70만원 미만	12(4.1)
				70만원 이상	2(0.7)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은 2년~2년 6개월 미만(2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년 6개월~2년 미만(18.7%), 6개월~1년 미만(17.7%), 2년 6개월 이상(15.3%)이 뒤를 이었다. 영어 사교육 수강 시간에 있어서는, 1주일에 2시간~4시간 미만(29.6%)과 6시간~8시간 미만(27.2%)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 상당 부분 영어 사교육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사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30만원~40만원 미만(28.9%)이 가장 많았고, 20만원~30만원 미만(24.5%), 10만원~20만원 미만(24.1%)이 그 뒤를 이었다. 40만원~70만원 미만의 비용을 영어 사

교육에 투자한 비율도 13.6%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와 면담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인식

1) 학교 영어 교육 대비 영어 사교육 만족도

대학생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에 대해 학교와 비교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 사교육 기관의 시설, 수업 분위기, 영어 교사, 교재, 교우 관계에 대하여 4점 척도 리커트 방식을 사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교우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영어 사교육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교재에 있어서는 무려 97%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사용한 영어 교재가 학교 교재보다 더 좋았다고 답하였다. 영어 교사에 대해서도 78.3%의 대학생들이 사교육 영어 교사들을 학교 영어 교사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4

학교 영어 교육 대비 영어 사교육 만족도

	매우 좋지 않았다	별로 좋지 않았다	더 좋은 편이 었다	매우 더 좋았다
시설	6(2.0%)	75(25.5%)	208(70.7%)	5(1.7%)
수업분위기	7(2.4%)	56(19.0%)	223(75.9%)	8(2.7%)
영어 교사	12(4.1%)	52(17.7%)	176(59.9%)	54(18.4%)
교재	3(1.0%)	6(2.0%)	273(92.9%)	12(4.1%)
교우관계	11(3.7%)	172(58.5%)	107(36.4%)	4(1.4%)

다섯 가지 요소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사교육 요소를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도, 사교육 영어 교사에 대한 높은 평가는 그대로 나타났다. 52.4%의 대학생들이 가장 만족했던 사교육 요소로 영어 교사를 선택하였고, 교재(24.8%), 수업 분위기(9.9%), 교우관계(8.8%), 시설(4.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연보라, 2008; 연상미, 김태영, 2010)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사교육 영어 교사를 학교 영어 교사보다 높게 평가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사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높은 영어 사교육 만족도는 면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면담 참여자 여덟 명 중 여섯 명이 영어 사교육이 학교 교육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교육(참여자 5), 소규모 수업(참여자 3), 분야별

로 세분화된 지도 및 수준 높은 친구들로부터의 자극(참여자 2)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세 명의 학생은 영어 사교육 강사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강사도 학교 선생님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다니던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의 학벌도 일단 공개를 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과외 선생님도 일단 외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오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였어요. (참여자 2)

영어 사교육 기관에 대해 아쉬웠던 점으로는 네 명의 참여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지적하였고,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목동 지역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았던 참여자 2의 경우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다. 대체로 면담 참여자들은 영어 사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슷한 인식을 나타냈다.

반면,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구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던 참여자 3의 경우 다양한 영어 과목을 이수하였고 소설이나 원서와 같은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이루어졌던 학교 영어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일부 참여자들은 열의가 있었던 학교 선생님이므로 인해 학교 영어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방학 때도 선생님들께서 수업도 해 주셨어요. 자료도 학원처럼 굉장히 많이 주고... 영어도 저는 고1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도 되게 좋아서 영어 성적도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참여자 8)

이와는 반대로 학교 영어 선생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참여자도 있었다.

선생님들 경우 일단 교과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학원 선생님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2)

학교 선생님한테 만족을 못한 건 아니에요. 못 가르치신 것도 아니구요...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 나오는 업무 처리하느라 진짜 바빴던 선생님도 기억나요.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참여자 1)

이들 학생의 경우 학교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교육 과정의 제약이나 수업 외적 업무로 인해 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100% 집중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영어 교육과 교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이러한 인식은 대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면담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 동안 과외나 교육 봉사, 교생 실습과 같은 교육 경험을 통해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고 답했다.

교생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데 실제 수업을 하니까 애들 실력 차가 커서 활동 같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은 실정이니까 거기서 영어 선생님이 제한이 많은 것 같았어요. 교과서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참여자 2)

제가 대학 와서 과외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보다 선생님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공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라에서 검증한 선생님들이잖아요. 사교육은 뭐 저 같은 영어 전공이 아닌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참여자 3)

사교육이 돈벌이 수단이라는 생각도 좀 더 들어요. 제가 했던 것(영어과외)도 횟수로 계산하는 거 자체가... (참여자 5)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영어 사교육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직접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 처럼 영어 비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교육 제공자로서의 경험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였고, 그 결과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영어 사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표 5는 고등학교 재학 시 받았던 영어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86.4%)은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나 영어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이나 현재 대학에서의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영어 사교육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영어 사교육의 효과성 여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수능/내신성적	2(0.7%)	38(12.9%)	216(73.5%)	38(12.9%)
일반 영어실력	2(0.7%)	168(57.1%)	117(39.8%)	7(2.4%)
대학 학업	55(18.7%)	132(44.9%)	86(29.3%)	21(7.1%)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영어 수능성적이나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 254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충 및 심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 비해 학급 당 인원이 적어 수업에 집중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응답(25.6%)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영어 수능성적이나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40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많은 양의 학습이 부담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60.0%)이 가장 많았다.

표 6은 학교 영어 교육과 영어 사교육이 각각 입시에 영향을 미친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6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학 합격에 영향을 미친 영향

	응답자(명)	백분율(%)
학교 영어 교육: 영어 사교육 = 80:20	25	8.5
학교 영어 교육: 영어 사교육 = 60:40	46	15.6
학교 영어 교육: 영어 사교육 = 50:50	78	26.5
학교 영어 교육: 영어 사교육 = 40:60	86	29.3
학교 영어 교육: 영어 사교육 = 20:80	59	20.1

영어 사교육의 역할을 더 크게 인식한 비율(49.4%)이 학교 영어 교육의 역할을 더 크게 인식한 비율(24.1%)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응답(26.5%)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학교 영어 교육이 기여하는 바를 상당 수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 학교 영어 교육과 영어 사교육이 대학 입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표 7과 표 8과 같이 출신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별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학 합격 기여도

지역 \ 중요성	학교 영어 교육 중요	영어 사교육 중요	합계
서울시	4(1.9%)	96(44.4%)	100(46.3%)
경기도	6(2.8%)	46(21.3%)	52(24.1%)
기타	61(28.2%)	3(1.4%)	64(29.6%)
합계	71(32.9%)	145(67.1%)	216(100.0%)

결측값=78(*학교영어교육 : 영어사교육 = 50:50* 결측값 처리), $\chi^2 = 161.5, p < .05$

표 8

영어 사교육 기간별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학 합격 기여도

기간 \ 중요성	학교 영어 교육 중요	영어 사교육 중요	합계
6개월 미만	24(11.1%)	7(3.2%)	31(14.4%)
6개월~1년 미만	37(17.1%)	9(4.2%)	46(21.3%)
1년~1년 6개월 미만	4(1.9%)	22(10.2%)	26(12.0%)
1년 6개월~2년 미만	1(0.5%)	32(14.8%)	33(15.3%)
2년~2년 6개월 미만	2(0.9%)	44(20.4%)	46(21.3%)
2년 6개월 이상	3(1.4%)	31(14.4%)	34(15.7%)
합계	71(32.9%)	145(67.1%)	216(100.0%)

결측값=78(*학교영어교육 : 영어사교육 = 50:50* 결측값 처리), $\chi^2 = 117.8, p < .05$

우선 표 7과 같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기타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들보다 대학 입학에 있어 영어 사교육의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영어 사교육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영어 사교육에 있어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지적한 김희삼(2011)의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또한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사교육의 대학 입학 기여도는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랐는데 대체로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면담 참여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과거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영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나 현재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과거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독해력 신장을 언급하였다. 이는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영어 사교육의 경우 말하기나 쓰기 영역보다는 독해나 문법 등의 영역에 치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면담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영어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나 기술만을 단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강했던 영어 사교육이 현재 대학생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섯 명의 참여자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수능 중심의 영어 사교육과 대학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쓰기 능력,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원하는데...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5)

가장 큰 건 고등학교 수업과 대학교 간 수준차이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괴리감이 좀 심한 거 같은... 갑자기 수준차이가 느껴지고... 그래서 또 회화학원이나 토익학원 다니고... (참여자 7)

일부 참여자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 교육이 현재 대학생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학교에서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했거나... 회화 수업을 했었던 거라든가... (참여자 3)

대학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오히려 학교에서 부교재를 이용해서 배웠던 게 대학 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그건 공교육이 더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그나마 학교에서는 듣기평가도 하고 말하기 평가도 하고... 수행평가로 모든 영역을 조금씩은 다루니까... (참여자 5)

위의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은, 적어도 영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영어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교육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 영어 교육이 교과서에 한정된 단조로운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교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수업을 제공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 및 형태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를 묻기에 앞서 대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물었다. 먼저 영어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2%가 동의하였다. 학교 영어 교육과 비교했을 때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싼 수강료 문제(42.9%)’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입시 및 암기, 독해 위주의 강의 문제(27.9%)’를 선택했다. 한편,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24.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어 사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타 의견과 연관시켜 보면, 학교 영어 교육의 부족함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열 영어 사교육 열풍을 해결하기 위해 입시제도의 변화 이외에 공교육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영어교과과정 개편(29.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 회화나 쓰기를 위한 영어 사교육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등학교 영어 교육이 기존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말하기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또한 ‘재량활동, 방과 후 수업 확대를 통한 영어노출시간 확대(23.5%)’, ‘영어전담교사 증원(20.1%)’, ‘영어학습환경 제공(18.7%)’ 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타(8.5%) 의견으로는 ‘학교 교사들의 영어 실력과 수업 진행 방식 수정’, ‘영어를 너무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 ‘학급 당 인원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5%가 재수강 의사를 표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유경(2013)의 연구에서 75.1%의 학생들이 영어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들의 경우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 표 9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일수록, 그리고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영어 사교육을 다시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대학 입학에 있어서 영어 사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응답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것은 영어 사교육이 대학 입학에 기여했다고 믿는 학생일수록 다시 영어 사교육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9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영어 사교육 재수강 희망 여부

지역	재수강여부		합계
	예	아니오	
서울시	99(33.7%)	41(13.9%)	140(47.6%)
경기도	56(19.0%)	29(9.9%)	85(28.9%)
기타	17(5.8%)	52(17.7%)	69(23.5%)
합계	172(58.5%)	122(41.5%)	294(100.0%)

 $\chi^2 = 43.1, p < .05$

표 10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별 영어 사교육 재수강 희망 여부

기간	재수강여부		합계
	예	아니오	
6개월 미만	13(4.4%)	24(8.2%)	37(12.6%)
6개월~1년 미만	11(3.7%)	41(13.9%)	52(17.7%)
1년~1년 6개월 미만	16(5.4%)	12(4.1%)	28(9.5%)
1년 6개월~2년 미만	44(15.0%)	11(3.7%)	55(18.7%)
2년~2년 6개월 미만	54(18.4%)	23(7.8%)	77(26.2%)
2년 6개월 이상	34(11.6%)	11(3.7%)	45(15.3%)
합계	172(58.5%)	122(41.5%)	294(100.0%)

 $\chi^2 = 58.3, p < .05$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도 영어 사교육을 다시 받겠다고 응답한 172명의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영어 사교육 기간 및 시간을 묻은 결과 표 11과 같았다. 6개월~1년 미만 동안(60.5%), 주당 2시간~4시간 미만(56.4%)의 영어 사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시절 실제 이들이 수강했던 사교육 기간 및 시간(표 3 참조)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즉 이들은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도 영어 사교육의 도움을 받겠지만 과거보다는 의존도를 줄여서 더 짧은 기간에 걸쳐 더 적은 시간을 수강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표 11

영어 사교육 재수강 시 희망 기간 및 시간

		응답자			응답자
수강 기간	6개월 미만	13(7.6%)	수강 시간	1시간 미만	2(1.2%)
	6개월~1년 미만	104(60.5%)		1시간~2시간 미만	43(25.0%)
	1년~1년 6개월 미만	44(25.6%)		2시간~4시간 미만	97(56.4%)
	1년 6개월~2년 미만	8(4.7%)		4시간~6시간 미만	27(15.7%)
	2년~2년 6개월 미만	3(1.7%)		6시간~8시간 미만	3(1.7%)
	합계	172(100%)		합계	172(100%)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영어 사교육 수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참여자 1, 2, 3, 4는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 영어 사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했고, 영어 사교육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참여자 6, 7, 8은 영어 사교육을 다시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영어 사교육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을 다시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어 사교육 수강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 2를 제외한 참여자 1, 3, 4는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는 사교육 수강 기간과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학교 영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영어 학습 방법을 찾아가며 공부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교육 받는 시간을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데 쓰는 게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길게 보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도 스스로 찾아가면서 배워보고... 문법이나 독해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참여자 6)

학교 선생님한테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솔직히 질문 있다고 해서 찾아가면 안받아주실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못했었는데... (참여자 8)

이들은 영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 학교의 도움과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입시 경쟁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후 과거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영어 교육과 영어 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설문 참여 대학생들은 교우관계를 제외한 모든 측면, 즉 시설, 수업 분위기, 교재, 교사 측면에서 영어 사교육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학생들은 사교육의 경우 학급 당 인원 수가 적어 교사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발견한 데 반해,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학교 영어 교육 및 교사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공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교 영어 교육의 문제가 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진도, 수업 외적 업무 등의 불리한 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과외, 교육봉사, 교생실습과 같은 교육 제공자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평가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어 사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수능 외국어 점수나 영어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동안 영어 사교육을 받아 온 학생일수록 이러한 인식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 받았던 영어 사교육이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나 현재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들은 과거 영어 사교육을 통해 주로 입시와 관련된 문법이나 독해와 같은 한정적인 영역만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기술을 단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나 대학 생활에서의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 사교육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교사의 주도적 노력 하에 다양한 수업 내용이 제공된 경우,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영어 교육이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영어 능력의 향상 및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에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주어질 경우 다시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58.5%가 영어 사교육 재수강 의사를 나타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영어 사교육 수

강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사교육 효과 인식에 있어서 출신 고등학교의 지역과 사교육 수강 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상응하는데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의 학생일수록, 그리고 사교육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사교육의 효과를 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학생의 경우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도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은 사교육 재수강 이유로,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이들이 다시 영어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강 기간과 시간 면에서 과거보다 축소된 형태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면담자의 경우 영어 사교육을 받는 대신 자기주도학습을 하거나 학교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대학 입학 이후 다소간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영어 공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 영어 사교육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 공교육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학교의 학습 환경은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를 축소하여 각각의 학생들이 교사의 관심을 더 받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개선은 개인이나 일선 학교의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바, 당장은 교재나 교수 방법 등의 다양화로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편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 영어 교육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 교재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에 주목하여, 교사의 수업 외적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교재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영어 교사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면담에서 학교 영어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학생들은 모두 교사의 다양한 시도와 열정을 그 이유로 들었고 이러한 수업이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는 영어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의지와 선택은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 특성상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어 사교육이 내신이나 수능 점수 향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과반수 이상은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도 영어 사교육을 수강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한, 사교육을 당장 폐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

대나 집단 심리에서 비롯되는 영어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중상 수준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원자표집 (volunteer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고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학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았던 사교육의 유형과 강도 및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수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층화표집을 통해 출신 고등학교의 지역과 사교육 수강 기간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성연. (2014). 사교육이 중학생의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1-29.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인옥. (2002). 초등영어 사교육과 공교육의 효율성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14(2), 277-298.
- 김희삼. (2011).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개발 연구원.
- 김희삼. (2012).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KDI 정책포럼, 제 245호 (2012-02).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남미숙. (2010). 초등학교 영어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5(2), 80-107.
-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 성기선. (2003). 서울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관련 개인변인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0(3), 185-208.
- 연보라. (2008). *공교육과 사교육 영어교사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서울 3개구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연상미, 김태영. (2010).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에 대한 인식이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22(4), 185-209.
- 오준일. (2011). 초등학생 대상 영어사교육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3(1), 225-240.
-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 (2004).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3(1), 331-356.

- 정양수, 김경애. (2008). 가정환경과 영어 사교육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0(2), 273-295.
- 정영애, 김정미.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인문논총*, 9, 113-136.
- 정유경. (2013). *중·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진경애. (2013). 학생, 교사, 학교 수준 변인에 따른 영어 학력 실태 분석. *현대 영어교육*, 14(2), 213-238.
- 통계청. (2013).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 통계청.
- 허균. (2002). *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다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10-9623-5243

Email: dahee0228@naver.com

이진화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2) 820-5400

Email: jinhlee@cau.ac.kr

Received 15 June 2014

Revised 6 August 2014

Accepted 20 August 2014